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8문-제82문) : 성찬이란 무엇인가? (2)

최민호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성찬에 있어 표(sign)와 지시물(signified thing)에 따른 신학논쟁 ⇨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인가?

- (1) 화체설(transubstantiation) : 로마 가톨릭, 집례자가 축성(祝聖)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됨
최대의 신비. 떡과 포도주의 본질적 속성이 바뀜
- (2) 공재설(consubstantiation) : 루터교회.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연결되어 교류)에 의하여 신성과 함께 인성(그의 몸과 피)이 떡 속에(in),
떡과 함께(with), 떡 아래(under)에 실제로 임재. (cf. 그러나 본질은 불변)

(3) 성령을 통한 실제적 임재(Real presence through the Holy Spirit)

칼빈의 견해. 예수님의 몸(인성)은 승천 후,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와 연합됨

- ① 성찬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임재하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임재)
- ② 성령님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띠(band) ⇨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에 계심: 내주(內住)
- ③ 집례자의 자세 : 성물(聖物,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감사기도함 ⇨ 아나포라(anaphora)
참여자 자세 : 마음을 드높이 들어 천상(天上 Heavenly Throne)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
- ④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Christ)하게 됨
- ⑤ 성찬은 장자 신자들이 어린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미리 맛보는 것임.
(찬송 285 4절) 주님의 성찬 받을 때 마다 /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양 잔치 참여함 같이 /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4) 기념설(memorialism) : 츠빙글리의 견해. 표는 지시물을 상징(signifies)하는 것. (성찬의 우상화 경계)

결론적으로 ① 떡과 포도주의 속성(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심

②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신자에게 영의 양식이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또는 새 언약)를 상징하며 신자를 깨끗하게 하는 참된 음료이다.

2. 중세 로마교회의 미사(mass)와 화체설의 큰 문제점

- ① 로마교회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 십자가의 죽음)을 눈 앞에 재현(representation).
(⇨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번의 완벽한 제사는 더 이상 재현될 필요가 없음.)
- ② 화체설은 지나친 신비를 강조한 나머지 떡과 포도주의 속성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침. (⇨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미신이 됨)

3. 성찬의 의미

- ① 그리스도와의 연합 :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 그와 그의 유익을 얻음.
- ② 성도와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 :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

4. 개인의 신앙과 성찬 참여

(고전11:28-29)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① 경건한 신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 ↳ 1.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후회하는 신자. 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자.
3. 믿음이 강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자.

cf.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유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 (스스로 고백한 후 참여)

② 본성적으로 죄인이기에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이 주어짐

⇨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조건은 1. 죄인임을 인정 2. 그리스도의 사하심을 확고히 신뢰

5. “이것을 받아 먹으라”에서 먹는다는 의미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속죄의 효력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고전1:30)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그의 육체와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과 마음의 양식이다. 그의 몸은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고, 그의 피는 죄인을 정결하게 만드는 음료이다.
6. 성찬이 정당하게 베풀어진다는 것은 ① 교회의 정규 집회에서 행해야 하며, ② 집례자는 예식에 따라 경건한 신자에게만 베풀며, ③ 성찬의 목적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믿음을 확증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7. 교회에 성례와의 관계
 - ① 모든 성례는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교회가 시행하는 것이다. (→ 개인이 마음대로 성례 시행 불가)
 - ② 세례를 통해 교회의 교인이 되며,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renewal)하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맺고, 성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 ③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지 않거나 불경건하거나 타종교인에게 성찬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8. §.82 (답)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규례에 따라서 천국의 열쇠들로 그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
⇒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선포(→ 설교)와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기준이다.
(마16:19) 내가(예수님) 천국 열쇠를 네게(베드로)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1)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 로마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수위권적 교회론과는 다른 의미)
(2)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을 살피 성찬을 분배해야 한다.